

특별기고

어버이 날 어린이 날 스승의 날에 즈음하여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이 들어 있다. 어버이와 스승에게 감사한 마음을, 또한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오늘날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기념일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이 아니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혼란과 급격한 대변화 속에서 유불선 삼도합일(三道合一)의 불사영생지도(不死永生之道)를 구하는 자의 입장에서 서서 어버이와 그 자식 그리고 스승에 대한 참된 의미를 한 번 보고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먼저 성경에는 에덴동산(천국)에 아담과 해와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천국에는 죄인인 인간은 살 수 없고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라는 결론이 자연히 나온다. 본바탕이 되는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세분이 일체가 되어 삼위일체(삼신일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였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즉삼(三即三) 일즉삼(一即三)의 존재였던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에덴동산(천국)이요 바로 빛인 것이다. 에덴동산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이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에덴동산 천국이 되는 것이다.

성경의 표현에서 보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는데 선악과는 영적 과잉인즉 죽이는 영이므로 마귀영이요 마귀인 것이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선악과인 마귀에 의해 하나님이 마귀의 포로가 된 결과 결 아담 해와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같은 내용이 격암유록에도 있으니 도부신인(桃符神人)편에 '천신부이지귀승(天神負而地鬼勝)' 즉 천신(하나님)이 지고 지귀(마귀)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지귀(地鬼) 즉 마귀가 주장하는 대로 인간과 우주 삼라만상이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였다.

천지개벽의 때를 알아야

성경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긴 바 되리라(고린도 전서 15:54)'라고 한바 이는 썩을 것이 썩고 죽을 것이 죽는 것은 생명(하나님)이 사망(마귀)에 삼긴 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



구세주의 인류를 구원하는 진리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도리이다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생명)이 마귀(사망)를 이기면 '죽음이 없는 세상(천국)'이요 마귀(사망)가 하나님(생명)을 이기면 '죽음이 있는 세상'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치가 이러함으로 마귀에게 패한 하나님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마귀에게 빼앗겨 마귀의 종이 된 아담 해와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담 해와가 합일이 되어야 에덴동산 천국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 해와를 먼저 찾고 마지막 최후의 일전(一戰)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아담을 찾아 하나님과 아담 해와의 신이 아담 속에서 일체를 이루니 이를 삼위일체(삼신일체)라고 하는 것이며 에덴동산(천국)이 회복

인류는 구세주의 자녀이자 제자이므로 어버이 스승인 구세주의 죽지 않는 비결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것이 그 도리이다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죽는 세상이 안 죽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여 소위 천지개벽, 새 하늘 새 땅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다.

천지공사에 동참하여 영생을 얻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신 둘째 아담을 여러 경전과 고서에서 구세주, 미륵불, 정도령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구세주(미륵불 정도령)는 감로해인(甘露海印)을 임의용사(任意用事)하여 마귀를 소탕하르며 누구든지 구세주로부터 감로해인을 받아 각자의 마음속 마귀를 없애고 마음속 나라는 자리에 구세주(미륵불 정도령)가 좌정하게 되면 모두 구세주 하나님(미륵불 정도령)이 되는 것이다. 기쁨과 희열의 천당(극락, 선경)에는 오직 구세주 하나님(미륵불 정도령) 이외에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구세주 하나님(미륵불 정도령)은 인류 전체를 구세주 하나님으로 만드는 천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

를 놓치지 말고 구세주 하나님을 만나서 감로해인을 받아 자신 속의 마귀를 소탕하여 인간의 탈을 벗고 구세주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를 두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다.

도의 뜻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격암유록 농궁가(弄弓歌)에는 '엄마엄마아부엄마 천하제일 우리엄마 도유충장(道乳充腸) 이내몸이 엄마없이 어이살까'라는 구절이 있다. '엄마엄마아부엄마'는 아버지면서 엄마인 심승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늘에 있을 때는 아버지로서, 땅으로 와서는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식이 되는 인간들을 구원할 때에는 엄마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 자식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엄마의 젖이란 무엇일까? 격암유록에서는 정도령이 가지고 온다는 감로해인,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들고나오는 감로수, 성경에서는 이간자(구세주)가 가지고 오는 이슬성신을 의미한다. 성경(이사야 26:19)에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서 죽음을 내어놓으리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구세주(이간자)가 이슬성신을 가지고 마귀를 죽여 이 땅에서 죽음이 없는 세상을 이루게 된다. 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감로해인 이슬성신은 마귀를 박멸소탕(撲滅掃蕩)하는 권능이 있다. 또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기도 하다. 마귀는 죽음의 신이므로 마귀를 없애 버리면 죽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구세주(미륵불, 정도령)가 어버이가 되어 어린 자식인 우리에게 젖이 되는 감로해인 이슬성신을 부어 주

는 것이다. 물론 농궁가에는 심승하 나님이 목운 박태선으로 와서 영적 아들이 되는 금운 정도령을 키우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금운과 목운이 합일된 분이 마지막 주인공인 정도령으로 감로해인을 임의용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구세주는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秘訣)'을 가르쳐 주시니 인류의 스승이 됨으로 우리는 구세주의 제자이기도 하다.

구세주의 자식이 되는 우리는 어버이가 되는 구세주의 말씀을 잘 실천해서 죽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구세주의 제자로서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의 말씀을 전 인류에게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5월의 어버이날, 어린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을 기리는 참된 의미가 될 것이다.

때를 모르면 철부지에 불과하다

버스가 떠난 후에 손 흔들며 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세상 말처럼 모든 일에는 다 그 때가 있는 법이다. 비근한 예로 1950년 6월 25일(일요일)에 터진 6.25전쟁만 해도 전 날인 6월 24일은 토요일 저녁에 목사님, 신부님, 스님, 교수님, 박사님 등 유명 지식인이 다음날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이 남침하리라는 것을 아는 자가 있었던가? 글 잘하고 말 잘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여 세상에서 유명할지는 몰라도 그다음 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지 못했다면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눈뜩 장님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이요. 입이 있어도 사람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는 병어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때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로부터 때를 모르는 자를 철부지(節不知)라고 한다. 때를 모르면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사(生死)가 걸리는 일이라면 더 말할 것 없다. 코로나의 팬데믹 현상은 병을 일으키는 마귀의 소행인 바 가까운 시기에 더욱 심각한 변이(變異) 변종(變種)이 나타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구세주 하나님(미륵불, 정도령)을 만나 감로해인(이슬성신)을 받아야 하며 또 우리는 인간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널리 전해야 할 것이다.

시시급급망망(時時急急忙忙) 전(傳)하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 3912 5953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31>

“너무도 놀라운 기쁨과 희열”

“모든 슬픔과 아픔을 벗어난 후 영원히 즐거워하리 손에 거문고 들고 늘 찬미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모든 슬픔과 아픔을 벗어난 후 영원히 즐거워하리. 이것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이 안되는 것이다. 그 즐거움은 인간의 즐거움이 아니다.

6000년 동안의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과 희열을 몽땅 합해도 천국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비하면 수천억

분의 일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그 기쁨을, 너무나 행복하 그 기쁨을 맛본 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그 기쁨을 맛본 자는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일 초도 놓칠 수가 없는 것이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하고로 인생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도 놀라운 기쁨과 희열인 것이다.*

발행인 칼럼

불로초를 받아 먹는 사람들

인류 최고의 문헌 『길가메쉬 서사시』에 영생을 추구한 인물이 나온다. 바로 길가메쉬다. 이 책은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니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0년전 사람도 영생을 추구했다는 말이다.

길가메쉬는 반신반인(半神半人)이다. 몸의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설마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마는 길가메쉬가 영웅이니까 후세인들이 그를 미화해서 신처럼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한다. 아무튼 우르크의 왕이자 영웅인 길가메쉬에게 아주 친한 친구(엔키두)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죽자 큰 충격을 받고 죽지 않는 비밀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이다.

절친의 죽음과 영생의 도

길가메쉬는 고생 끝에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트나피쉬티를 만나 우트나피쉬티의 부인에게서 불로초를 받지만 바로 그것을 먹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들과 같이 나누어 먹는다.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를 하는 것과 조희성 미륵부처님이 중학교 때 절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영생을 찾아나서는 얘기가 연상된다.

길가메쉬가 우트나피쉬티이라는 현자를 찾아가 불로초를 받은 것처럼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도 승리제단에 와서 불로초를 받았다. 불로초란 세상 들판에 있는 풀이나 과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배웠다. 마음에는 불로초의 마음이 있고, 선악과의 마음이 있다

는 것이다. 즉 어떤 마음을 먹으면 노화를 극복할 수 있고, 어떤 마음을 먹으면 늙어서 죽는다는 것이다. 영생할 마음을 먹으면 몸속에서 바이오트론이 활성화되고, 죽을 마음을 먹으면 녹시트론이 분비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세포 차원에서 설명하면 바이오트론이 활성화되면 세포가 건강해지고 반대로 녹시트론이 분비되면 세포가 병든다는 내용이다.

영생의 세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세포는 수명이 있어서 분열을 한다. 박테리아처럼 계속 분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노화하지 않고 죽지 않겠지만 우리 몸의 세포는 헤이플릭 한계에 따라 일정한 횟수에 다다르면 분열을 멈춘다. 분열을 멈추면 노화 세포가 되는 것이다. 노화 세포는 바구니에 든 썩은 사과처럼 주변 세포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썩은 사과가 있으면 주변에 멸절한 사과들이 금방 썩는 것처럼 노화세포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염증을 만들고, 주변 세포들이 빨리 병들어 노화가 되게끔 만든다.

세포의 노화나 소멸로 인해 우리 몸은 세포가 부족하게 된다. 그때 세포 분열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 세포가 재생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점점 노화하게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세포를 즉각각각 재생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미달된 세포 재생의 완벽한 에너지는 바로 구세주께서 가지고 오신 감로이슬성신이다. 감로를 받아 먹게 되면 반드시 영생하게 된다. 감로는 마음이 정결한 자만 받을 수 있다.*



꼭 봐야 할 유튜브 강연

요즘 노화를 되돌리는 학자들의 노력이 책으로 활발하게 출판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텔로미어 효과』이다. 엘리자베스 블랙번과 엘리사 에펠이 공저한 이 책은 텔로미어와 마음의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부정적인 마음들, 예컨대 냉소적 세계관,

비관적인 마음, 방황하는 마음, 주의산만, 반추(과거를 회상하면서 괴로워하는 마음) 등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텔로미어가 짧다는 것이다. 반면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웰빙지로 생각하거나, 사명으로 생각하거나, 극복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텔로머라제로 말미암은 것인데 텔로미어를 재생하는 효소인 텔로머라제는 세포분열의 헤이플릭 한계를 극복하는 놀라운 신의 선물이다. 영생하는 마음을 먹으면 텔로머라제가 왕성하게 활동하여 노화를 극복할 수 있다. 진지아롱TV <https://youtube.com/Hiv2x6EFxPY>

구세주에 배말씀집

신간서적

승리제단 식구용

7

2001년 4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277쪽 / 큰 본문공배

구세주 예배 말씀집 7집 펴냄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깊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구세주의 말씀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어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독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